'108 돼지 저금통'으로 인재불사

견강암, 동지 인재불사 장학금 전달

동지때 108개 저금통으로 '나눔'
동지 및 기도 회향 맞춰 장학금
매월 2 · 4째주 무료 급식 진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 견강암이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실천 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지를 앞둔 구랍 20일에 방문한 부산 사상구 모라동 견강암(주지 향공)에서는 주지 향공 스님과 불자들이 돼지저금통을 뜯어 동전을 정리하고 있었다. 동지불공 후 회향할 장학금이다.

견강암은 한해를 시작하는 정초가 되면 108개의 돼지 저금통을 불자들에게 나눠준다. 동지가 다가오면 불자들은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견강암을 방문한다. 15년 동안 이어온 인재불사 나눔이다. 견강암 장학금은 동지 뿐 아니라 산신재, 백중기도 등 기도를 회향할 때마다 전달된다. 동지는 그 중 하나다. 그 때마다 전달하는 장학금은 200만 원 또는 300만 원이다.

견강암은 구랍 22일(동지)에 견강암 동지 장학금을 5명의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견강암이 1년 동안 전달한 장학금은 1000만 원에 달한다. 108개의 저금통을 나눠줘도 돌아오는 저금통 수는 부족했고 기도비도 장학금으로 부족할 때가 대부분이다. 그 때마다 항공 스님이 나머지 금액을 충당했다.


부산 견강암 주지 향공 스님과 불자들이 돼지저금통을 정리하고 있다. 견강암은 매년 동지를 맞아 지역인재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견강암의 나눔 활동은 장학금 뿐만이 아니다. 매월 둘째, 넷째 주에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모라동 고동바위에서 무료급식을 진행한다. 무료급식과 함께 팥죽, 김장김치, 라면 등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번 김장김치 나눔에 소요된 금액은 2000만 원에 이른다. 코로나19로 인해 무료급식이 중단되자 500여 가구에 도시락을 전달했고, 특별히 33가구를 별도로 추가로 선정해 5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반찬을 지급했다. 추가로 선정된 33가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독거어르신과 조손가정이다. 나눔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자 주지 향공 스님은 "다시 태어난 계기가 있었다"고 했다.

향공 스님은 20대 때 대학생활을 시작하며 친구들과 전국일주여행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3년 동안 병원에서 누워있어야 했고 5차례의 대수술 후에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다리가 불편하다. 스님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 스님은 몸이 마비되어 대소변까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 때 당시를 떠 올리며 "도움을 받은 시간을 돌이켜 보고, 지금 이렇게라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때 받았던 도움을 회향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스님의 결심은 30년 전 부산 사상구 만덕동에 위치한 국제시장 난민촌에서 국수만발공양으로 실현됐다. 당시 법당은 11평이었다. 공양간과 스님의 처소까지 포함한 그 작은 공간에서 스님과 불자들은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 국수를 끓였다. 국수만발공양은 15년 전 불사해 이전한 지금의 견강암에서 이어졌다. 견강암을 불사하며 스님은 봉사를 이어갔고 봉사회원들이 모여들었다. 향공 스님은 지금까지 봉사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 '정각원' 회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정각원은 견강암에서 봉사와 신행을 위해 활동하는 봉사단체이다. 난민촌에서 국수만발공양을 시작했던 당시부터 함께했던 봉사자들이 모여 견강암 신행단체 보현회를 만들었다. 보현회가 주축이 되어 10년 전에 정각원이 정식으로 결성되었고 매년 꾸준히 봉사회원이 늘어나 현재 10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주지 향공 스님은 "나눔을 통해 성장하고 남을 나와 똑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곧 보살도이다. 다음 한해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장수잔치 개최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은해)이 구랍 23일 복지관에서 지역사회 내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장수잔치 '사랑해孝 감사해孝'를 개최했다.

장수잔치는 용호복지관이 남구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운데 칠순과 팔순, 구순, 상수를 맞은 노인들을 위해 마련한 행사이다. 복지관은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을 위해 장수 잔치상과 건강식품 등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다. 또 칠순과 팔순, 구순에 해당하지만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을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고 장수와 건강을 기원했다. 서은해 용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어르신들의 팔순, 구순, 상수를 복지관에서 모실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통영 대성암 제1기 불교대학 졸업식

통영 대성암(주지 승원, 불교대학장)은 구랍 16일 제1기 대성암 불교대학 졸업식 및 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 및 수계식에는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을 비롯해 대성암불교대학 강주 대각 스님, 통영사암연합회장 용화사 종묵 스님, 고성 문수암 이암 스님, 고성 장의사 현제 스님, 통영법륜사 진명 스님, 고성 운흥사 선현 스님, 고성 청련암 원명 스님과 졸업생 및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대성암 주지 승원 스님은 "통영지역 조계종 불교대학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17주 입문교육을 거친 18명이 졸업하게 됐다. 졸업이 끝이 아닌 시작이란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성암 불교대학은 2022년부터 기존 17주 과정을 19주 과정으로 확대 편성해 교육을 심화시킬 계획이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해동용궁사, 소외이웃 위한 나눔

백미 2650kg · 성금 1000만원 후원



해동 용궁사가 구랍 24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해동용궁사(주지 연규)가 구랍 24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지역 소외이웃을 위한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

용궁사는 전달식에서 백미 2650kg과 후원 성금 1000만 원을 부산 기장군에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성탄절을 맞아 종교 화합을 기원하고 연말연시에 힘든 소외 이웃이 행복하기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주지 연규 스님과 김종천 기장군 창조경제국장, 용궁사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다이빙 국가대표 우하람, 김지욱 선수가 동참했다.

주지 연규 스님은 "주지로 취임 후 지역민과 화합하고 소통할 것을 강조했었다"며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십시일반 후원이 큰 공덕의 산이 되었고 불자들의 공덕이 더 크게 회향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아무쪼록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성금과 쌀이 전달돼 희망과 용기가 함께 선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동용궁사는 조계종 제19교구 화엄사 말사로 등록 후 지역과 소통으로 화합하고 나눔으로 동체대비를 실천하고 있다. 주지 연규 스님은 취임 후 100여 일 동안 인근 동암마을 쌀 전달과 그룹홈 아동 후원 등 지속적인 나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나눔을 위해 해동용궁사는 찾아오는 관광객과 불자들을 권선해 십시일반 후원금을 마련했고 백미는 지역 농민이 수확한 기장쌀을 매수해 농민 돕기에도 앞장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명정장학재단, 동지 장학금 전달

부산 원오사 재단법인 꿈나무가꾸기 명정장학재단(대표이사 정관, 이하 명정장학재단)이 구랍 19일 경내 대웅전에서 동지를 맞아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명정장학재단은 매년 부처님오신날과 동지를 맞아 장학금을 전달하고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후원자들이 십시일반 장학 후원금을 어느 해보다 더 많이 보시해 풍성한 나눔으로 회향됐다. 동지 장학금은 일반대학부 19명에게 각 100만 원, 불교동아리 우수자(부산과학기술대학교) 7명에게 각 50만 원, 고등부 18명에게 각 50만 원, 중등부 10명에게 각 30만 원, 초등부 12명에게 각 10만 원, 만학도 2명에게 각 20만 원 등 3610만 원을 수여했다. 아울러 명정지역아동센터와 북한어린이 돕기, 승려 장학금 및 복지지원금 등 1766만 원을 전달해 총 5376만 원을 후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상구불교연합회, 장학금 전달

부산 사상구불교연합회(회장 성문)가 구랍 18일 부산제일 감전 새마을금고 4층에서 인재불사를 위한 장학금 및 이웃돕기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장학금은 초 · 중 · 고 34명에게 각 30만 원씩 총 1020만 원을 전달했으며, 물품은 김 70박스와 라면 100박스(220만 원 상당)를 후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사상구불교연합회 회장 성문스님, 총무 법경 스님 등 회원스님과 심인택 신도회장, 여운철 사상구청장 권한대행, 장제원 국회의원,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조병길 사상구의회 의장 및 사상구 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천태종 광명사, 동지팥죽 나눔 개최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가 구랍 22일 경내에서 '전통민속문화 동지 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과 불자들은 동지 팥죽 나눔을 위해 전날인 12월 21일부터 새알 만들기, 팥알 삶기, 팥물 등을 만들었으며, 이틀 동안 9개의 대형 가마솥에서 팥죽을 끓여 총 5000인분의 팥죽을 만들었다. 광명사는 팥죽을 신도 외 인근 주민, 등산객, 금정구청, 장전지구대, 금정소방서 관내 기관에 전달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법문을 통해 "작은 설, 동지를 맞아 무장무애하시고 행복하시길 축원드린다"며 "팥죽은 모든 액운액난을 쫓는 전통민속음식이다. 지극한 마음으로 동지 축원을 한 오늘 이 마음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안의 우주,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하여 가정, 이웃, 사회, 국가에 멋지게 회향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